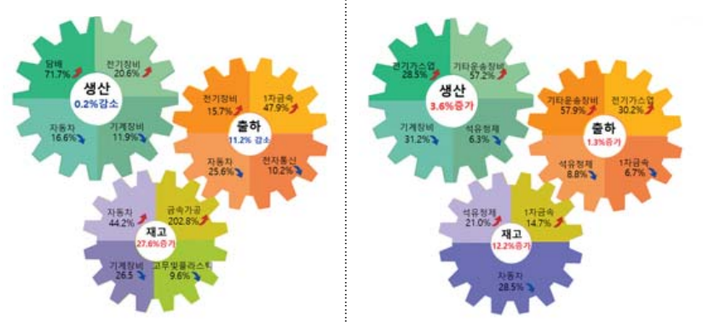
지역 건설수주·소비 '찬바람 쌩쌩'

●호남통계청 '1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

광주 전년比 62.9%·전남 47.1% 대폭 감소

소비 2-8%↓…광공업 생산서 희비 엇갈려

11월 산업활동동향 광주 전남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의 소비와 건설수주 활동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광주 건설수주액은 1천189억원으로 전년 동월(3천209억원) 대비 62.9% 감소했다.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286.2% 증가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에서 78.2%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이 531.3% 늘었지만 건축부문이 92.1% 줄었다.

전남도 같은 기간 4천515억원으로 전년 동월(8천535억원) 대비 47.1% 감소했다.

전남은 공공(72.5%)·민간(35.5%)·토목(52.1%)·건축(42.9%) 부분이 모두 줄어들었다.

대형소매점 판매도 광주·전남지역 모두 감소했다.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0으로 전년 동월(105.9) 대비 1.8% 줄어들었다. 백화점 판매(2.1%)와 대형마트 판매(1.2%) 모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감소했다.

주요 상품군 중에서는 기타상품(8.8%), 오락·취미·경기용품(5.0%) 등의 판매가 가장 많이 늘었지만 화장품(-7.7%), 의복(-6.6%), 신발·가방(-4.3%) 등의 소비가 줄었다.

전남지역은 전년 동월(94.8) 대비 8.4% 감소한 86.8을 기록했으며 신발·가방(-19.3%), 의복(-15.2%), 기타상품(-11.8%), 화장품(-11.6%) 등 모두 부문에서 감소해 광주지역보다 소비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와 대비해 지역 광공업 생산·출하는 광주는 줄고 전남은 늘어났다.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118.3으로 전년 동월(118.5) 대비 0.2% 감소했다. 담배(71.7%), 전기장비(20.6%), 금속가공(14.6%)은 증가했으나 자동차(16.6%), 기계장비(11.9%), 전자·통신(10.1%) 등이 감소해 영향을 미쳤다.

또 출하는 전년 동월(123.5) 대비 11.2% 감소한 109.7이었고 자동차(25.6%), 전자·통신(10.2%), 고무 및 플라스틱(4.6%) 등이 감소했다.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했다. 전기·가스업(28.5%), 기타운송장비(57.2%), 1차금속(1.1%) 등이 오른 영향이었다.

광공업 출하도 기타운송장비(57.9%), 전기·가스업(30.2%), 화학제품(2.4%) 등이 증가함에 따라 1.3% 상승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총 30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광주은행 14기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4기 해단식

30명 수료…다양한 협업 프로젝트 완수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총 30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4기는 올해 4월 말 발대식을 통해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새로운 브랜드 홍보 기획 그리고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해 대학생들의 패기와 열정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대학생 홍보대사는 MZ세대만의 색다른 방법으로 소통의 창을 대폭 넓혀 ▲YOUTH고객을 위한 소비꿀팁 안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금융교육 ▲광주천 쓰담달리기 봉사활동 ▲전통시장 활성화 등 총 36회의 다양한 사회공헌 및 홍보 활동을 펼치며 광주은행의 ESG경영철학을 지역 사회 곳곳에 전파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대학생 홍보대사들의 지난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수료증 전달을 비롯해 우수팀 및 우수 홍보대사를 선정해 시상과 함께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광주은행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460명의 대학생 홍보대사를 배출했다.

대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광주은행은 1981년 설립한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현재 4천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현재 131호점까지 선정)'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현재 12호까지 선정)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신입행원 채용에 있어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선발함으로써 지역의 취업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발해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서며 지역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한전, 감사원 자체감사 콘테스트 '대상'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특별감사…역대 최초 그랜드 슬램

한국전력은 30일 "한전 감사실이 감사원이 주최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역대 최초로 4대 감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으로부터 대상을 차지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를 통해 공공감사법을 적용받는 총 677개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우수 감사사항을 공모해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인용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현황자료 중 약 26GW 이상의 허수 수요량이 포함된 것을 확인, 26GW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18개 이상을 추가로 건설해야 되며 그 외 전력인프라 건설비용까지 합산하면 약 117조원의 전력설비 과잉투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사용예정통지 제도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업자들에게 악용되는 현상을 적발했으며 정부 정책건의 등을 시행한 결과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건수가 2024년 상반기에는 2023년 하반기 대비 약 56% 대폭 감소했다.

이는 감사 이후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차단하기 위한 감사 조치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임채만 기자

김재식 신임 농어촌公 전남본부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15대 본부장에 김재식(사진) 수자원시설처장이 취임했다.

김재식 신임 전남지역본부장은 보성 출신으로 여수대학교에서 해양토목(현 전남대)을 전공하고 목포대학교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를 취득했다.

김 본부장은 1995년도에 입사해 기술안전품질원 진단기획부장, 전남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장과 기반사업부장을 거쳐 2022년 해남·완도지사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사 수자원시설처장으로 재직해 왔다.

특히 2015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됐으며 기술사를 취득한 최고 전문가다. 김 본부장은 내달 2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임채만 기자